

“개인 어장 허가 빨리 냈으면”

89.3.10



<11>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1리. 동해바다를 끼고 자리잡은 80호 남짓한 어촌. 배를 타러 나가는 아침에 ‘여자’를 보면 채수없다고 난리를 쳤던 이 마을에 이젠 부부가 함께 배를 타는 집이 10호가 넘게 됐다.

10여년간 함께 고기잡이를 해 온 권경배(63)·허임란(59)씨 부부는 이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배를 타기 시작했다.

“20년 전 미역양식하러 같이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는 일꾼을 구하기 힘들어 죽기 살기로 한번 나가 보자고 해서 쭉 같이 고기잡이에 나선 거죠.” 부인 허씨의 말이다.

새벽 4시, 눈을 뜬 이들 부부는 먼저 뜰에 나서 하늘의 별을 집집한다. 날씨가 흐릴지 비가 올지를 미리 짐쳐보는 것이다.

아침밥을 챙겨 먹고 점심까지 싸들고 포구로 나하면 5시반이다. 0.5t짜리 통통배로 2백여m 떨어진 바다로 나가 전날 내려둔 그물을 거두어올린다.

남편 권씨가 그물을 끌어올리면 부인 허씨는 그물에 걸린 큰 고기들을 끄집어내 배 중앙에 있는 고기물통에 던져 넣는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 맞는다.

10년 뱃길 헤쳐온 어부 권경배·허임란씨

7백여m의 그물 14개를 끌어 올리는 데는 1시간반 정도 걸린다. 일단 포구로 돌아오면 부인 허씨가 잡은 고기를 꺼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집에서 내려온 냉동차에 가격을 쳐서 판다.

가자미 큰 것은 1kg에 1만3천원, 한번에 5kg 정도 잡으면 6만5천원은 번다.

건어올린 그물을 바닷가에 던져두고 손질된 그물을 싣고 다시 바다로 나간다.

그물을 치는 것은 꼭 두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부인 허씨가 손빠르게 그물 내린 곳을 표시하는 깃발을 띄우고 그물을 물밑에 고정시키는 툯발을 내린다. 또다시 거두어올린 고기를 싣고 돌아오면 11시. 이때부터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싸운 점심을 먹는다. 고기가 잘 잡힌 날은 팔고 난 가자미, 골

년간 떨어져 살았다.

“얼굴을 잘 쳐다보지도 못했으니 1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얼굴을 잘 못 알아보았을 정도였지요.”

그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군대생활을 계속하다가 제대, 고향에 정착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남의 배 타고 나가 고기 잡다가 어장을 개발해서 차츰차츰 살림이 붙어났어요.” 그 후 벌써 27년째 고기잡는 일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하면 돈을 6대4 정도로 나눠서 줘야 하니까 남는 게 얼마 없지요. 그리고 일 자체가 호흡이 맞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내하고 같이하는 게 제일 배짱 편하고 좋아요.”

수입이 들쭉날쭉 하는 게 흠이지만 하지만 좋을 때는 상당히



팔고 남은 고기를 즉석에서 회쳐 먹기도 하는 이들 고기잡이 부부는 “바다가 다 돈인데 뭐하러 도시에 나가 고생하노?”라면서 고달픈 줄을 모른다.

얼굴 모른채 결혼...월수입 70~80만원

뱀, 멍게, 해삼 등을 즉석에서 회쳐 물회를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한다.

한번 더 그물을 치고 돌아와 오후 5~6시까지는 계속 그물에 걸린 해초나 불가사리를 떼내는 등 그물정리작업을 한다.

지경리가 고향인 남편 권씨와 영덕군 남정면이 고향인 부인 허씨가 결혼한 것은 6·25 전쟁이 터진 직후인 1950년 음력 5월 초여드레.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을 모른 채 결혼했으나 1주일 만에 남편이 군대에 나가 1

났다.

2월 달력에는 1일·2만5천원, 2일·휴무, 3일·22만7천5백원, 4일·6만2천원, 5일·5만4천6백원 등으로 깨알같이 수입이 적혀 있어 그물값, 기름값 등을 제외하면 한달 순수입이 70만~80만원은 넘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지역이 팀스피리트 훈련지역으로 지정돼 일년에 3번씩 상륙작전훈련을 하는 바람에 개인어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것이 제일 큰 불만이다.

“어장은 허가해 줘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남편 권씨는 어장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못내 아쉽다.

큰아들 둘째아들이 부산에서 모두 원양어선을 타고 세째아들은 같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집 냉동차를 운전한다.

앞으로 10년은 더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부부는 10년 만에 한번씩 음력 3월 초순에 지내는 마을 풍어제에 낼 추렴금을 준비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일부경구피임약 생산금지

보사부, 에스트로겐 높아

89.3.10

보사부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미약품의 로코트 등 50마이크로그램의 에스트로겐을 함유한 경구용 피임약은 부작용이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5일 생산을 금지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사부는 에스트로겐 함유 경구피임제는 에스트로겐 함유량 50마이크로그램 미만의 합리적인 처방으로 이달 18일까지 허가 사항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